

기초생활수급자 1분기 교육급여 지급

도교육청,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 2만940명에 40여억원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분기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교육급여 지급 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며 도내 초·중·고·특수·학력인정학교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4만17,380원의 절반인 22만3,690원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올 1분기 지원 규모는 초등학교생 6,995명(2억8,810만6,000원), 중학교 5,575명(3억7,995만3,000원), 고등학교 8,370명(33억3,614,000원) 등 모두 2

만940명에 총 40억4,007만3,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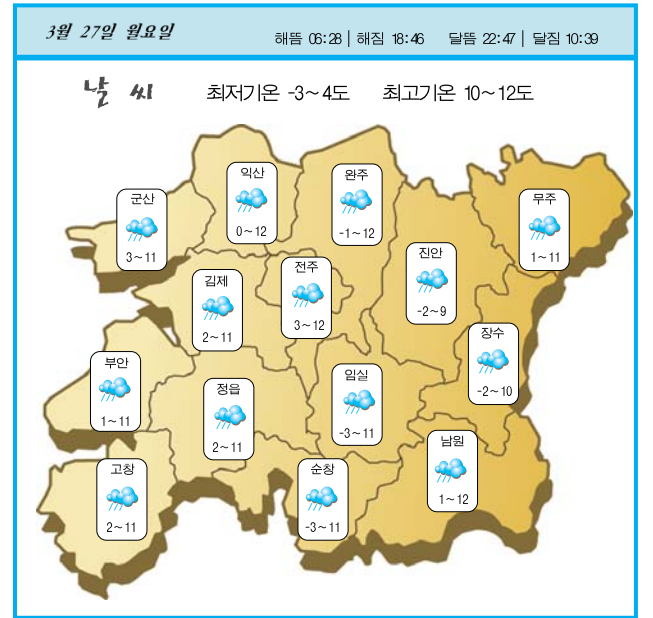
항목별로는 △부교재비(초·중·고) 8억6,338만5,000원 △학용품비(중·고) 3억7,563만1,000원 △교과서대(고) 5억 4,261만3,000원 △입학금(고) 3,614만 원 △수업료(고) 21억5,895만6,000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는 학교로 송금하고 나머지 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은 학부모 계좌에 직접 입금해 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푸른 전주 만들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무궁화·배롱나무 등 계절별 개화 수목 1478주·초화류 꽃무릇 2000본 식재

제72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푸른 전주를 만들기 위한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문학대공원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사)푸른전주운동본부, 애국화조성봉사단원, 문학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코끼리 유치원생, 공무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전주사민들은 무궁화와 배롱나무, 철쭉, 화양목 등 계절별 개화 수목 1,478주와 초화류 꽃무릇 2,000본을 저마다의 꿈과 소원을 담아 정성껏 식재했다.

특히, 올해 식목일에는 근면성과 순결, 끈기와 유구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 150여 주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권 내 공원에 식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는 문학대공원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사)푸른전주운동본부, 애국화조성봉사단원, 문학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코끼리 유치원생, 공무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또한, 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시민들이 앞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감나무와 앵두나무, 체리나무 등 670주와 봄꽃인 비올라 1,000여본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지난해 시험재배에 성공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심은 나무가 앞으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

며 "도시열섬현상 해소 차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참여지원 학부모회 모집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부모 학교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초·중·고·특수 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18일까지 학교참여지원 학부모회를 모집한다.

올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동아리 운영, 학교참여 및 지원 등을 주요 추진내용으로 한 연간 학교 참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를 통해 소속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수준, 학교참여 활동 계획, 예산 집

행계획,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계획을 평가해 150개 학부모회를 선정하여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부모회는 4월 25일 업무관리시스템과 전북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 3년간 미참여 학부모회 중 참여의지가 높은 학부모회와 맞닿아 부부나 아버지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학부모회는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학부모회 공모 사전설명회를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다.

/정해은기자

초·중생 대상 전북외고 월드랭귀지 스쿨

중국어·일본어·영어 등 6개 외국어 지도

전북외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JF World Languages School'을 열어 초·중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6개 외국어를 지도한다.

입학식은 내달 8일에 열고 겨울방학 직전까지 지도를 이어 간다.

수업은 토요일 오후 2시간 동안이며 1회 2시간씩 총 12회인데 기초회화를 중심으로 각 언어관련 문화체험도 갖는다. 문화체험은 음식 및 요리 체험, 전통의상 및 놀이 체험, 원어 노래 배우고 부르기도 있다.

전북외고가 추진하는 월드랭귀지스쿨은 어학 실력이 뛰어난 재학생들이 멘토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

으로 지역사회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교육을 공동체와 함께 운영해 나가는 모델을 제시해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기 교장은 "지난해 본교 106명의 재학생들이 멘토로서 150여명의 초·중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문화체험을 함께 한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지역의 여러 교육주체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랭귀지스쿨 입학에 원하는 학생은 30일까지 전북외고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면 된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리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